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

양심영* · 황진구**

이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소외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전국 3,300여명의 일반 중·고생과 소년소녀가장 중·고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실태조사¹⁾ 결과를 기초로 일반청소년집단과 소외계층 청소년집단간 정보인식 및 정보접근부문 격차와 일상적인 정보생활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소외집단 내부의 정보생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지역별 배경변인에 따른 정보화수준을 비교하였다.

일반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간의 정보격차 분석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정보인식부문에서는 집단간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가정의 PC 보유여부 등으로 구성된 정보접근부문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특히 정보인식과 접근부문을 통합한 정보화지수에서도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화지수가 일반청소년의 평균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두 집단간 정보접근 격차가 일상적인 정보생활, 예컨대 PC 이용장소와 시간, 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친 사람 등에서의 차이(difference)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소외계층 청소년 내부의 정보격차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정보화지수에 성별

* 숭의여자대학 교수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1)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청소년집단의 조사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1년도 정책과제인 「청소년정보격차실태와 대책연구」를 위해 2001년 7월에 수집된 자료이고, 정보소외계층집단의 조사자료는 K재단에서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실시한 자료임을 밝히둔다.

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거주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의 순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결론에서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 실태와 그들의 정보화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중심대상을 소외청소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 소외계층청소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다양한 소외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민간부문 참여방식이 단순히 일회성의 PC보급형태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제공과 더불어 이들의 건전한 인터넷이용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와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 문제의 제기

우리사회의 정보화는 1990년대 후반이후 그 확산 속도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²⁾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무분별한 스팸메일의 폭증³⁾, 유해하거나 거짓된 정보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인터넷 이용율을 보이는 청소년과 관련된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들의 인터넷 이용율만큼이나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걱정거리로 거론되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의 대부분

2)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1998년 12.4%, 1999년 15.2%, 2000년 37.1%, 2001년 64.9%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이용율의 세부적인 변화내용은 최두진 외(2001), 2001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현황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참조할 것.

3)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 1인당 하루 평균 수신 받는 스팸메일의 수가 45통에 이르고, 이러한 스팸메일을 지우는 것에만 1년동안 44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만도 연간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란물로 대표되는 유해정보로의 접근, 게임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중독, 자살이나 폭탄으로 대표되는 반사회적 사이트의 이용과 같은 대표적인 역기능들은 청소년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간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결국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는 정보화관련 문제들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또는 개인이 정보접근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차별화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터넷 접근이 힘든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정보화는 '새로운 미래'가 아닌 '현존하는 소외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⁴⁾ 소외계층 청소년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⁵⁾ 사정이 이러함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보소외계층을 선정하는 잣대로 인터넷 이용여부 등을 기준으로 연령층이나 거주지역,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대상을 추출하기 때문에 일단의 소외계층 청소년이 회석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현재의 청소년이라는 자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소외계층에 속한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2001년부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안'이 시행되고 있고, 2001년 12월에는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정보통신부(2001),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서울: 정보통신부.,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광석 외(2000),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을 참조할 것.

5) 이러한 사실은 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취약집단 조사대상 1005명 중 10대 청소년이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오광석 외(2000),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전산원, p. 20. 참조.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집단의 정보화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첫째, 일반청소년집단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소외계층 청소년 내부의 정보화실태가 성별, 교급별, 거주지역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분석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지닌 정책적 함의를 찾아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청소년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1.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정보화와 맥을 같이 하며 등장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개념은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이나 ‘정보소외’(digital alienation)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정보격차의 범주나 내용, 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따라서 청소년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비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나 분석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주제는 정보격차의 ‘주체’가 누구인가(who)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what)로 축약되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보격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후에 이를 기준으로 ‘주체’, 특히 비교가 가능한 집단을 파악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정보격차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있어서도, 개인이 소유한 일반적인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 정보 부자(the information rich)와 정보 빈자(the information poor) 사이의 격차, 또는 중요한 정보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정보소유자(Haves)와 소유하지 못한 자(Have Nots)⁶⁾

6) William Wresch(1996), *Disconnected: Haves and Have Nots in the Information Age*,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람들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공존한다. 이 밖에도 정보접근, 예컨대 인터넷 접근(access)이 가능한 사람과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 사이의 분절(separation)⁷⁾로 보기도 한다. 요컨대 정보격차라 함은 개인차원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기본 분석을 기초로 정보의 '보유여부'와 새로운 정보매체와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여부'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계층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분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⁸⁾

그렇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격차는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이에 대한 예측은 정보화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흐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 중립론으로 구분된다.⁹⁾

낙관론의 경우 정보기술이 도입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계층간 정보격차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곧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확산이론 모델'(diffusion theory model)이 대표적인데, 사회적 확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S자형(S curve of diffusion)을 보이며 초기에 발생하는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7)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rade Association(2000), *State of the Internet 2000*.(<http://www.itta.com/internet2000.htm>, 검색일 : 2000. 10. 4.).

8) 집단, 계층간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는, 성적(性的)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 윤영민(2000), "정보능력의 성차(性差)", 사이버공간의 정치.; David Bolt & Ray Crawford(2000), "Gender Gap", Digital Divide: Computers and Our Children's Future, New York: TV Books., 세대별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는 황상민(2000), "온라인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과 부모의 시각차", 청소년 온라인문화 바로 이해하기, 학부모 정보감시단·경향닷컴 세미나자료집.; 박명진(1996), "정보격차와 세대차이", 정보사회와 사회윤리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재단.; 윤옥경(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한국청소년연구, 제 3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지역별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는 배규환·임창규(1998), "한국 5대 도시의 정보화수준과 정보격차",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편. 등이 있다. 서구에서는 인종에 따른 정보격차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대표하는 World Wide Web의 약자인 WWW를 'Wold White Web'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9) 정보격차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 중립론에 대한 논의는 히트카 이(1996),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pp. 29-36.을 참조하였음.

완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비판론은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결국은 정보불평등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 사회전반의 불평등으로 확산된다고 본다. 지식격차이론이 대표적인데, 비록 정보매체가 대중화되더라도 새로운 정보기술과 매체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인해 정보격차가 완화된기 전에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다수이론’(critical mass)으로 대표되는 중립론은 정보화의 성공이 정보화를 수용하는 ‘결정적인 다수’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뉴미디어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구조는 다수의 참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화의 성공여부는 결정적 다수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에서 제시된 세가지 시각은 정보격차의 내용을 ‘정보’ 자체와 ‘네트워크’라는 물리적 연계망에 국한시킴으로서 이 두가지 요소의 접근 문제로 제한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보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정보이용의 ‘결과’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데, 정보격차의 범위를 네트워크나 정보 자체로 축소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에 대한 ‘접근’이 바로 새로운 가치창출로 직결될 것이라는 결정론적이고 제한적인 가정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격차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접근의 문제와 더불어 이용, 그리고 그 결과나 만족까지 예측할 수 있는 분석틀이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계층이 당면한 정보격차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한데, 정보화의 확산이 네트워크와 정보매체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의해 복합적인 형태를 보일 수 있고 다양한 미디어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정보격차의 사회적 의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격차가 해소되던, 아니면 증가하던, 또는 이용자 확보여부에 따라 양상이 변화된다고 예측하던 간에, 정보격차에 정부나 사회, 지식인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불평

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정보격차일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보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에는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가 지닌 의미가 기존 사회와 다를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정보사회의 본질이나 특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점이 공존하고 있지만,¹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정보가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재화나 힘(power)의 요소로 간주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문간에 물리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중요한 사회적 생활수단인 동시에 경제적 생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현재적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계층의 정보격차’가 지닌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의 청소년은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동시에 진행중인 정보화로의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계층이며, 결국에는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세대이기 때문이다. 정보격차와 청소년의 관계는 정보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불과하고, 더불어, 교육과 경제활동의 문제,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정보격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가진다는 점이다. 정보격차의 원인은 구성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 결과가 점차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매체의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은 개인·기업·국가·사회·세계의 패스권을 바꾸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매체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개인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정보나 매체로부터 소외된 행위자는 정보접근과 이용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생활습관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가져오며, 결국에는 다양한 문화생

10) 정보사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김용학(1998), “정보사회의 성격 :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사회학회 편,을 참조할 것.

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삶 자체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접근과 활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경제적 삶, 문화생활의 격차로 확대되어 일상적 삶 자체의 불평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다시 정보격차 자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소년의 경우, 이미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세대적 특성상 정보화 초기단계에서 정보나 매체로부터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소외계층 청소년은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재생산시키는 주역’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컨대, 청소년 중 소외계층에 속한 집단은 현존하는 삶의 격차와 더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라는 이중적 정보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 정보격차는 교육기회와 경제활동의 불평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원격교육 기회가 증대하고 이는 결국 교육기회의 확장을 가져 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새로운 교육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모든 교육 대상자가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거주지역이나 경제수준, 부모의 태도 등에 따라 청소년의 정보매체 보유나 이용능력의 차등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매체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새로운 활용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계층 내부에서도 교육정보서비스의 이용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도 대부분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낙오되고 있는데, 이제는 입시경쟁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방식에도 적응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존 입시경쟁에 따른 사회적 격차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이중적 불평등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재의 청소년 정보격차가 문화생활과 사회참여의 격차를 초래하

고, 중국에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정보화를 예찬하는 주장 중 하나는 정보화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다양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생활이 사회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불평등과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정보격차는 개별적인 차원의 문화적 소외나 사회적 이탈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에서의 문화생활은 단순한 소비활동이 아니라 생산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생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격차에 의한 문화생활 격차는 일상적 삶 자체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삶의 불평등은 결국 사회내부의 갈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III. 정보격차 분석틀 검토와 연구방법

1. 기존 정보격차 분석틀 검토

정보격차의 실체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정보’ 자체의 소유나 접근여부보다는 정보화에 인식, 정보매체 접근, 정보이용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사실상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¹¹⁾ 정보격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적인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화지표(PII: Personalized Information Indices) 개발과 이를 토대로 하는 실태조사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화지표는 ①인식지수, ②접근지수, ③정보사용지수, ④정보역량(활용)지수로 구성된다. 인식지수는 개인이 갖는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접근지수는 정보기기 및 매체에 대한 개인의 접근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지수는 개인이 정보매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 역량(활용)지수는 개인의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리고 개인정보화지표는 각 지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각각 0과 1로 변환한 평가가치의 단순 합산이나 단순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¹²⁾

이 밖에도 개인정보화지표를 기초로 정보격차의 중요한 배경변인인 성이나 연령, 직업 등에 따른 사회계층별 정보격차 실태분석과 동시에 조사대상자 전체의 정보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불평등지수’나 ‘정보불평등계수’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불평등지수는 사회집단간의 격차를 대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한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지수별 해당 문항 응답 값을 표준화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각 지수값을 산출하고 있다.¹³⁾ ‘정보불평등계수’는 지니계수 개념을

계산법을 활용한 것으로, 지니계수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이 밖에도 개인별 지수를 이용하여 소득별, 지역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사회계

11)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격차를 분석하여 온 미국 상무부의 Falling Through the Net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정보격차의 문제를 사실상 ‘접근기회의 격차’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U. S. NTIA(2000), Falling Through the Net : Toward Digital Inclusion, Washington D. C.

12) 최홍석 외(2000), 정보불평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pp. 33-45.

13) 유지열 외(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p. 210.

14) 최홍석 외(2000), 앞의 책, 정보통신부, pp. 46-51.

층 배경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한 후 각 집단의 개인정보화지수의 평균을 구하여 가장 높은 집단의 지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다른 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¹⁵⁾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수화 작업보다는 성별, 지역별, 소득규모별 배경변인별 인터넷이용율과 같은 주요항목의 단순 비교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¹⁶⁾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분석하려는 시도로는 황진구 외(2001)가 있는데, 청소년 정보격차 개념을 “정보화 과정에서 청소년계층과 다른 사회계층, 청소년계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실공간의 정보화인식과 접근의 구조적 편차와 가상공간 이용에 따른 만족의 차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정보화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청소년 정보화지표(Personal Informatization Index of the Youth : PIYY)”를 정보인식지수, 정보접근지수, 정보사용지수, 정보만족지수로 구분하고 각 지수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¹⁷⁾

2.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을 일반청소년집단과 소외계층집단으로 구분하여 총3,72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 일반청소년집단의 표본선정은 다단계층화집락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따라 전국 도시를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지역으로 층화한 후, 3개 권역별(중부, 동남부, 서남부)로 구분하여 9개의 행정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행정구역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학생 모집단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였다.

15)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집단간 정보화수준의 비교는 유지열 외(2000), 앞의 책, p. 213-218.을 참조할 것.

16) 최두진 외(2001), 2001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현황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7) 황진구 외(2001),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pp. 29-34.

<표 1> 조사대상 및 구성비율

단위 : 명(%)

	전체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남자	여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전체	63726 (100.0)	1896 (50.9)	1830 (49.1)	1760 (47.2)	1260 (33.8)	706 (18.9)	1719 (46.1)	1384 (37.1)	623 (16.7)
일반 청소년	3324 (100.0)	1696 (51.0)	1628 (49.0)	1525 (45.9)	1166 (35.1)	633 (19.0)	1559 (46.9)	1222 (36.8)	543 (16.3)
소외계층 청소년	402 1(00.0)	200 (49.8)	202 (50.2)	235 (58.5)	94 2(3.4)	73 1(8.2)	160 (39.8)	162 (40.3)	80 1(9.9)

소외집단 청소년의 표본은 다양한 소외집단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청소년¹⁸⁾ 7,258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정부에 의해 2001년 소년소녀가정 세대로 새롭게 책정된 1,142명 중에서 16개 시도별 거주지를 고려하여 556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2001년 9월 설문을 실시하여 이 중 402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외계층 청소년집단에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외에도 장애청소년, 빈곤가족 청소년, 농어촌지역 청소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소외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일반 청소년들과의 가정세대구성별 차이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2)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18)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이란 한국 청소년 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 책임감으로 가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를 의미하며, 그 수는 2000년 현재 7,258명이다. 소년소녀가정은 정부가 1985년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 4,900명이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1999년부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에만 선정토록하고,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등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그 보호를 받는 아동은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보호함으로써 최근에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2001, 문화관광부, p. 442.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격차 분석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일반 청소년집단과 소외계층간의 정보격차 내용을 정보인식, 정보접근, 정보사용부문으로 구분한 후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정보인식부분은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동의 정도,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 인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보접근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가정의 PC 보유여부, 청소년의 PC 이용여부, 청소년의 인터넷과 PC방 이용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사용부문에서는 PC를 이용하는 장소와 시간, 목적의 차이, 인터넷 이용경력과 이용시간, PC방 이용용도와 그 이유, 컴퓨터교육여부 등을 조사하였다<표 2>.

<표 2>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부 문	일반청소년집단과 소외집단 비교내용		소외계층 내부의 분석내용
	(1) 지수격차 분석 (%)	(2) 정보화 차이 분석	
정보인식 부문 (100/40.9%)	○ 정보화에 대한 이해정도(38%) ○ 정보화에 대한 동의정도(33%) ○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29%)		○ 정보화에 대한 이해정도 ○ 정보화에 대한 동의정도 ○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
정보접근 부문 (100/59.1%)	○ 가정의 PC 보유 (24.25 %) ○ 청소년 PC 이용 (28.73 %) ○ 청소년 인터넷 이용 (32.59%) ○ 청소년 PC방 이용 (14.43%)		○ 가정의 PC 보유 ○ PC 취득 경로 ○ 청소년 PC 이용 ○ PC 이용 불가능 이유 ○ PC이용에 영향을 준 사람 ○ 청소년 인터넷 이용 ○ 인터넷이용 불가능 이유 ○ 청소년 PC방 이용
정보 사용 부문		○ PC이용 장소 ○ PC이용 시간 ○ 인터넷 이용 경력 ○ 청소년 PC방 이용용도 ○ 컴퓨터교육 여부	○ PC이용 목적 ○ PC이용 지도 감독자 ○ 인터넷 이용 시간 ○ 청소년 PC방 이용이유 ○ 컴퓨터교육 미경험 이유

또한 두 집단의 정보화격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화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인식과 정보접근부문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 인식과 접근부문에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보화지수 총합이 100이 되도록 하였다.¹⁹⁾ 소외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분석의 내용과 방법도 위와

유사하며, 성별, 교급별, 거주지역별 특성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일반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간의 정보격차

1) 정보인식부문 정보격차

일반청소년집단과 소외집단청소년의 정보인식부문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화에 대한 이해정도’, ‘우리사회가 정보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동의정도’,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집단과 소외계층집단 청소년간에는 정보화인식에서 전반적으로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정보인식 부문 비교

항 목	Mean(SD)		t-value	유의수준
	일반집단	소외집단		
정보화인식 항목전체*	3.49(0.60)	3.52(0.55)	-0.97	0.29
정보화에 대한 이해정도**	3.42(0.82)	3.41(0.76)	0.09	0.92
정보사회화에 대한 동의정도***	3.71(0.78)	3.75(0.74)	-0.85	0.39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정도****	3.32(1.02)	3.39(0.91)	-1.45	0.15

* 최소값 (1점), 최대값 (5점)

** ‘전혀 모름’(1점), ‘잘 모름’(2점), ‘들어만 봄’(3점), ‘조금 읽’(4점), ‘매우 자세히 읽’(5점)

*** ‘매우 부정’(1점), ‘부정하는 편’(2점), ‘보통’(3점), ‘긍정하는 편’(4점), ‘매우 긍정’(5점)

**** ‘매우 두려움’(1점), ‘조금 두려움’(2), ‘보통임’(3점), ‘두렵지 않음’(4)

19) 가중치 부여방식과 그 세부적인 내용은 황진구 외(2001),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pp. 98-99를 참조할 것.

점), ‘매우 두려움’(5점)

정보화에 대한 이해정도에서 일반집단의 경우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46.5%)이 가장 높았고, ‘들어만 본 정도이다’라는 비율이 35.7%로 다음을 나타냈다. 소외계층청소년의 경우도 ‘조금 알고 있다’(52.7%), ‘들어만 본 정도이다’(32.8%)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5점척도로 재부호화하여 평균을 계산하면 각각 3.42와 3.41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에서도 일반집단의 경우는 65.8%가, 소외계층집단의 67.9%가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재부호화하여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각각 3.71과 3.75로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에 따른 두려움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일반집단과 소외계층집단 모두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36.0%,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 32.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척도로 재부호화하여 계산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면, 각각 3.32와 3.39로 조사였고, 이 항목 또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보인식관련 항목의 전체 평균은 각각 3.49와 3.52로 조사되었으며, 이 또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보인식부문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화 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4>.

<표 4> 정보인식지수 비교

항 목	Mean(SD)		t-value	유의수준
	일반집단	소외집단		
정보화인식지수 전체 *	69.95(12.06)	70.75(10.45)	-1.45	0.16
정보화에 대한 이해정도**	26.14(6.37)	26.13(5.91)	0.18	0.99
정보사회화에 대한 동의정도***	24.51(5.13)	24.87(4.55)	-1.45	0.15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정도****	19.24(5.91)	19.70(5.19)	-1.65	0.10

* 최대값(100점), 최소값(20점), ** 최대값(38점), 최소값(7.6점),

*** 최대값(33점), 최소값(6.6), **** 최대값(29점), 최소값(5.8점)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일반청소년이나 소외계층에 상관없이 청소년계층이라면 모두 정보사회의 특징이나 그 경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정보사회를 향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정보화과정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보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정보접근부문과 정보화지수 격차

개인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필수적인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가와 같은 정보접근 능력보유 여부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집단과 소외계층집단간의 정보접근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가정의 PC소유 여부, 본인의 PC·인터넷·PC방 이용여부 등을 조사하였는데, PC방 이용여부 외의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5>.

<표 5> 정보접근부문 비교

단위 : %, (명)

항 목	전체	일반집단	소외집단	χ^2 (p-value)
가정의 PC 보유율	77.9(2902)	79.7(2650)	62.7(252)	60.43 (0.00)
청소년의 PC 이용율	94.1(3506)	95.6(3177)	82.3(329)	115.07 (0.00)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율	92.0(3426)	93.1(3093)	83.3(333)	46.58 (0.00)
청소년의 PC방 이용율	72.9(2715)	73.0(2427)	71.8(288)	0.26 (0.61)

먼저, 가정의 PC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79.7%가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소외계층의 경우는 62.7%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율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소외집단 가정의 PC보유율 62.7%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평균 보유율 78.7%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²⁰⁾ 또한 청소년 자신의 PC이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일반집단의 경우 95.6%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소외집단의 경우는 82.3%만이 PC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간의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집단의 93.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소외계층의 경우는 83.3%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간의 인터넷이용에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PC방 이용경험의 경우, 일반집단의 학생 72.9%가, 소외계층집단의 71.8%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정보접근과 관련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정보접근지수의 격차를 살펴보면, 일반집단과 소외집단간의 격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표 6>. 정보접근지수의 총합을 100으로 할 때, 일반청소년의 평균은 87.65인 반면에 소외계층은 76.64로 11.11의 차이를 보인다.

<표 6> 정보접근지수 비교

20) 최두진 외(2001), 앞의 책, p. 9.

항 목	Mean (SD)		t-value	유의수준
	일반집단	소외계층집단		
정보접근지수 전체*	87.65(18.41)	76.54(26.69)	8.06	0.00
가정의 PC보유 항목**	19.33(9.75)	15.20(11.74)	6.78	0.00
청소년의 PC이용 항목***	27.46(5.91)	23.63(10.99)	6.85	0.00
청소년의 인터넷이용 항목****	30.33(8.29)	27.13(12.19)	5.10	0.00
청소년의 PC방이용 항목*****	10.54(6.41)	10.36(6.50)	0.52	0.62

* 최대값(100점), 최소값(0점), ** 최대값(24.25점), 최소값(0점),

*** 최대값(28.73점), 최소값(0점), **** 최대값(32.59점), 최소값(0점),

***** 최대값(14.43점), 최소값(0점)

가정의 PC보유나, 청소년 본인의 PC이용, 인터넷이용 항목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의 PC방 이용항목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PC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일반청소년과 소외집단 청소년간의 PC방 이용이유에서는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청소년과 소외계층집단의 정보인식지수와 접근지수에 각각 41.0과 59.0의 가중치를 부여한 전체 정보화지수(100)를 살펴보면, 인식지수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접근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두 지수를 합한 정보화지수의 경우도 각각 80.41과 74.14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정보인식지수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집단간 정보접근 부분의 격차가 전체적인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정보화지수 비교

항 목	Mean(SD)		t-value	유의수준
	일반청소년집단	소외계층집단		
정보화지수*	80.41(12.12)	74.14(17.07)	7.08	0.00
정보인식지수**	28.68(4.95)	29.00(4.28)	1.415	0.16
정보접근지수***	51.72(10.86)	45.16(15.75)	8.06	0.00

* 최대값(100점), 최소값(8.20점), ** 최대값(41.0점), 최소값(8.20점),

*** 최대값(59.0점), 최소값(0점)

3) 정보사용부문의 차이(difference)

‘정보격차’라는 개념에는 ‘정보’가 유익하고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내재적인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빈부격차’, ‘소득격차’와 같은 개념에도 빈자보다는 부자가, 소득이 높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격차라는 개념 속에도 이미 정보가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편향적 전제에 입각한 논의는 자칫 정보생활의 ‘차이’(Difference)가 지닌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생활의 ‘차이’라는 개념은 ‘정보격차’ 개념이 추구하는 일정한 가치적 방향과는 달리 다양한 집단의 정보생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정보생활의 차이는 정보격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동시에 다시금 정보격차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일반청소년집단과 소외계층집단의 정보격차가 일반적인 정보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청소년이 당면한 현실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청소년집단과 소외청소년집단간의 일상적인 정보생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PC 이용장소와 목적, 이용시간, 영향을 받은 사람, PC방 이용목적과 이유, 인터넷이용시간 등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PC 이용장소의 경우, 일반집단과 소외집단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집단의 경우 대부분이(84.4%) 자신의 집에서 PC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소외집단의 경우는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48.4%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접근부문 비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외집단 가정의 PC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PC방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의 경우 일반집단(11.9%)보다 소외집단의 응답(24.7%)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교수업시간에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12.2%로 일반집단의 2.2%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8>.

PC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차이는 'PC 이용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차이와도 관련되는데, 특히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의 경우 바른 정보생활과 컴퓨터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37.2%로 가장 높았고 부모 25.4%, 형제자매 13.7%의 순이었다. 반면 소외집단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가 49.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학교선생님 28.4%, 형제자매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외계층집단의 모집단을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으로 설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지만,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영향이 높다는 점은 앞서 분석한 주된 PC 이용장소 중 학교수업시간이 12.2%를 차지한 것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8> PC 이용장소, 영향을 받은 사람 비교

단위 : %, (명)

항 목		전체	일반집단	소외계층집단	χ^2 (p-value)
PC를 이용하는 장소	집	80.4(2859)	84.4(2665)	48.4(194)	340.66 (0.00)
	친구집	1.7(61)	1.3(41)	5.0(20)	
	학교수업시간	3.3(119)	2.2(70)	12.2(49)	
	방과후학교활동	0.8(29)	.5(16)	3.2(13)	
	컴퓨터학원	0.8(28)	.5(16)	3.0(12)	
	PC방	11.9(424)	10.3(325)	24.7(99)	
	공공기관	0.7(24)	0.5(15)	2.2(9)	
	기타	0.4(13)	0.3(8)	1.2(5)	
	전체	100.0(3557)	100.0(3156)	100.0(401)	
PC 이용에 영향을 받은 사람	부모	22.8(798)	25.4(798)	-	359.95 (0.00)
	형제자매	460(13.1)	13.7(429)	8.5(31)	
	친구	38.5(1349)	37.2(1167)	49.7(182)	
	친척	8.8(307)	9.0(282)	6.8(25)	
	학교선생님	7.6(268)	5.2(164)	28.4(104)	
	학원	5.8(204)	5.7(180)	6.6(24)	
	기타	3.4(120)	3.8(120)	-	
	전체	100.0(3506)	100.0(3140)	100.0(366)	

또한 PC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집단은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게임이나 오락이 31.3%, 일거나 문서작업이 9.2%의 순을 보였다. 반면에 소외집단의 경우는 일반집단과 같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이용이 38.4%로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이 일거나 문서작업 34.5%, 게임이나 오락이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PC 이용목적 비교

단위 : %, (명)

항 목		전체	일반집단	소외계층집단	χ^2 (p-value)
PC 이용 목적	일기, 문서작성	11.6(404)	9.2(291)	34.5(113)	189.79 (0.00)
	게임, 오락	30.4(1061)	31.3(989)	22.0(72)	
	PC통신, 인터넷	52.0(1817)	53.4(1691)	38.4(126)	
	계산, 그래프	0.5(17)	0.4(14)	0.9(3)	
	데이터베이스	0.3(12)	0.4(12)	-	
	음악, 영상물감상	4.6(161)	4.7(150)	3.4(11)	
	기타	0.6(20)	0.5(17)	0.9(3)	
	전체	100.0(3492)	100.0(3164)	100.0(328)	

다음으로는 인터넷 PC방 이용목적에 조사하였는데, 일반집단(54.2%)과 소외계층집단(37.6%) 모두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 PC방을 찾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반집단이 컴퓨터게임외의 선택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 고른 것에 비해, 소외계층 집단에서는 학교공부나 학습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PC방을 찾는다(30.0%), 전자편지사용(18.1%)도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10>.

<표 10> PC방 이용목적 비교

단위 : %, (명)

항 목	전체	일반집단	소외계층집단	χ^2 (p-value)
인터넷게임	52.3(1311)	54.2(1203)	37.6(108)	159.45 (0.00)
친구나 채팅	12.4(310)	12.6(279)	10.8(31)	
학습정보취득	10.5(264)	8.0(178)	30.0(86)	
전자편지사용	12.7(319)	12.0(267)	18.1(52)	
음란물 이용	0.7(18)	0.8(18)	-	
특정목적없음	7.3(182)	7.8(172)	3.5(10)	
기타	4.1(102)	4.6(102)	-	
전체	100.0(2506)	100.0(2219)	100.0(287)	

이 밖에 PC방을 이용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이용목적이 게임인 것과 관련되어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을 찾는다는 비율(36.3%)이 가장 높았고, 통신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비율(20.1%)로 다음을 나타냈다. 반면 소외계층집단의 경우에는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3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PC방을 찾는다는 비율(25.0%)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집단과 소외계층 집단의 PC와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경력 등을 조사하였는데<표11>, 일반청소년의 주당 평균 PC 이용시간은 886.2분(약 14.8시간, 1일 2.11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507.0분(약 8.5시간, 1일 1.2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청소년이 소외집단 청소년에 비해 1.76배 더 오랫동안 PC를 이용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접근에서의 격차가 이용시간의 차이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청소년의 경우 주당 741.2분(약 12.4시간, 1일 1.76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420.1분(약 6시간, 1일 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7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이용경력에서도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평균 23.9개월동안 인터넷을 이용해 왔지만, 소외계층의 경우는 20.7개월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PC, 인터넷 이용시간과 이용경력 비교

	Mean(SD)		t-value	유의수준
	일반청소년집단	소외계층청소년집단		
1주일 PC이용 시간 (분)	886.2(744.28)	507.0(507.92)	13.07	0.00
1주일 인터넷 이용시간 (분)	741.2(678.12)	420.1(447.93)	11.98	0.00
인터넷 이용경력 (개월)	23.9(15.65)	20.7(14.82)	3.70	0.00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집단과 소외계층집단 모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9%, 8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청소년 평균에 비해 소외집단의 교육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12> 컴퓨터 교육관련 사항 비교

단위 : 명, (%)

		전 체	일반청소년	소외집단	χ^2 (p-value)
컴퓨터 교육경험 여부	있 음	2920(78.4)	2589(77.9)	331(82.3)	4.19 (0.04)
	없 음	806(21.6)	735(22.1)	71(17.7)	
	전 체	3726(100.0)	3324(100.0)	402(100.0)	
컴퓨터 교육 미수강 이유	시간이 없어서	157(20.8)	155(22.6)	2(2.9)	57.66 (0.00)
	가족/친구에게 배울 수 있어서	165(21.9)	140(20.4)	25(36.2)	
	혼자서도 할 수 있어서	114(15.1)	106(15.5)	8(11.6)	
	관심이나 필요성을 못느껴	130(17.2)	124(18.1)	6(8.7)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92(12.2)	85(12.4)	7(10.1)	
	교육비용이 비싸서	57(7.5)	39(5.7)	18(26.1)	
	기 타	40(5.3)	37(5.4)	3(4.3)	
	전 체	755(100.0)	686(100.0)	69(100.0)	

앞의 문항과 관련해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집단은 보기 문항들에 비교적 고른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21.1%)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소외계층 집단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3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용이 비싸서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외계층 청소년 내부의 정보격차

1) 정보인식부문 정보격차

소외계층 청소년 내부의 정보인식지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청소년과 소외계층청소년의 비교내용과 같은 항목을 성별, 교급별, 거주지역을 변인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인식지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세부적인 응답내용을 분석하면, 우선 ‘정보화’,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212명(52.7%)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본 정도이다가 132명(32.8%), 잘 모른다가 49명(12.2%)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정보화’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되어가고 있냐는 질문에는 적극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27명(56.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동의하는 청소년들도 116명(28.9%)으로서 85.6%가 우리 사회의 정보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165명(41.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혀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132명(32.8%)으로서 소외청소년들은 미래의 정보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음을 보였다.

정보인식부문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가중치를 부여한 정보인식지수 전체를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여지고 있듯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교급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실업고가 72.66점, 유사하게 인문고가 72.28점으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었으며 중학생들의 인식은 69.5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소외계층 청소년의 대부분이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고르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소외계층의 정보인식지수 전체 비교

항 목	구 분		Mean(SD)	t-value/ F-ratio	유의확률
정보인식 지수전체 (최대값 100점) (최소값 20점)	성별	남자	71.18(10.74)	0.00	0.99
		여자	70.32(10.16)		
	교급별	중학교	69.56(10.29)	3.78	0.02
		인문계고등학교	72.28(9.44)		
		실업계고등학교	72.66(11.71)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69.81(10.98)	1.21	0.30
		중소도시	71.62(9.50)		
		군단위	70.86(11.17)		
	전체평균		70.75(10.45)		

정보인식부문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동의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표 14>. 한편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 성별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상세한 통계결과에서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36.6%인 반면 남학생은 29.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소외계층의 정보인식지수 항목 비교

항 목	구 분		Mean(SD)	t-value/ F-ratio	유의확률
정보화에 대한 이해정도 (최대값 38점) (최소값 7.6점)	성별	남자	25.90(6.10)	0.83	0.36
		여자	26.36(5.73)		
	교급별	중학교	25.22(6.02)	6.99	0.00
		인문계고등학교	27.35(5.69)		
		실업계고등학교	27.51(5.34)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25.38(6.27)	2.19	0.11
		중소도시	26.69(5.61)		
		군단위	26.51(5.68)		
전체 평균		26.13(5.91)			
정보화에 대한 동의정도 (최대값 33점), (최소값 6.6점)	성별	남자	25.17(4.55)	1.47	0.23
		여자	24.56(4.53)		
	교급별	중학교	24.35(4.36)	3.81	0.02
		인문계고등학교	25.47(4.55)		
		실업계고등학교	25.77(4.94)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24.90(4.71)	0.75	0.47
		중소도시	25.10(4.28)		
		군단위	24.34(4.77)		
전체 평균		24.87(4.55)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 정도 (최대값 29점) (최소값 5.8점)	성별	남자	20.02(5.04)	3.60	0.05
		여자	19.38(4.93)		
	교급별	중학교	19.99(5.23)	0.92	0.40
		인문계고등학교	19.21(4.68)		
		실업계고등학교	19.39(5.66)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19.41(5.10)	0.45	0.64
		중소도시	19.84(5.08)		
		군단위	20.01(5.61)		
전체평균		19.70(5.19)			

2) 정보접근부문 정보격차

소외집단 청소년 내부의 정보접근부문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가정의 PC보유여부, 청소년 본인의 컴퓨터이용여부, 인터넷이용여부, PC방 이용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접근부문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의 컴퓨터 보유여부에서 조사대상자 중 252명(62.7%)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PC를 보유한 소외청소년 가운데 78.8%는 무상으로 기증 받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여부에 있어서 응답자의 329명(82.3%)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요 활용목적은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이 126명(38.4%), 일기, 숙제 등 문서작성이 113명(34.5%)으로 나타났다. 한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장비부족(50.7%)과 인터넷 전용선이 없는 경우(14.9%)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1개월 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333명(83.30%)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7명(16.81%)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인터넷 PC방을 이용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88명(71.8%)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PC방의 주요 목적으로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108명(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공부나 학습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한다는 대상자가 86명(30.0%)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PC방을 찾는 이유 역시 집에 컴퓨터가 없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찾게 된다는 사람이 98명(3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이유로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72명(25.0%), 통신 속도 차이 때문이 49명(17.0%) 등이었다.

정보접근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경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전체 정보접근지수는 거주지역과 학교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인문고의 경우 81.2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업고 79.12점, 중학교는 73.86점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의 차이로는 대도시가 80.91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76.07점, 군단위가 69.10점 순서로 정보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5>.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정보인식지수의 경우, 실업고가 가장 높았으나 실제 정보접근의 차원에서는 인문고 학생이 더 높다는 점이다. 다만, 거주지역규모는 정보인식지수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접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지수 전체 비교

항 목	구 분		Mean(SD)	t-value/ F-ratio	유의 확률
정보접근 지수전체 (최대값 100점) (최소값 0점)	성별	남자	76.62(27.28)	0.06	0.95
		여자	76.46(26.16)		
	교급별	중학교	73.86(28.66)	2.96	0.05
		인문계고등학교	81.21(22.20)		
		실업계고등학교	79.12(24.61)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80.91(23.06)	5.31	0.01
		중소도시	76.07(27.10)		
		군단위	69.10(30.69)		

보다 세분화된 정보접근차원, 즉 가정의 PC보유 여부, 개인별 PC나 인터넷, PC방 이용여부항목의 지수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가정의 PC보유 항목에서는 성별, 교급별 변인은 영향이 없었으나 거주지역만이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 군단위의 순이었다. 청소년 본인의 PC이용 항목에서도 거주지역만이 이용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는데, 가정의 PC보유항목과 동일하게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지수에서는 교급별, 거주지역규모가 영향을 미치고 성별에 따라서는 인터넷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인터넷 이용이 많은 집단은 실업고, 인문고, 중학생의 순이었고 거주지역에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군단위는 저조하였다. PC방 이용지수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역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교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C방 이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군단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소외집단 내부의 정보접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주지역규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청소년 전체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표 1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지수 항목별 비교

항 목	구 분		Mean(SD)	t-value/ F-ratio	유의 확률
가정의 PC 보유 (최대값 24.25점) (최소값 0점)	성별	남자	15.28(11.73)	0.13	0.90
		여자	15.13(11.78)		
	교급별	중학교	15.48(11.68)	0.29	0.75
		인문계고등학교	15.22(11.79)		
		실업계고등학교	14.28(12.01)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17.13(11.08)	4.63	0.01
		중소도시	14.67(11.89)		
		군단위	12.43(12.20)		

항 목	구 분		Mean(SD)	t-value/ F-ratio	유의 확률
청소년의 PC이용 항목 (최대값 28.73점) (최소값 0점)	성별	남자	23.82(10.84)	0.35	0.73
		여자	23.44(11.16)		
	교급별	중학교	22.93(11.55)	1.14	0.32
		인문계고등학교	24.76(9.97)		
		실업계고등학교	24.40(10.35)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25.09(9.58)	2.97	0.05
		중소도시	23.23(11.34)		
		군단위	12.52(10.99)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항목 (최대값 32.59점) (최소값 0점)	성별	남자	26.04(13.09)	-1.79	0.08
		여자	28.21(11.14)		
	교급별	중학교	25.32(13.60)	6.38	0.00
		인문계고등학교	29.47(9.64)		
		실업계고등학교	29.91(9.01)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27.85(11.53)	5.34	0.01
		중소도시	28.37(10.98)		
		군단위	23.22(14.84)		
청소년의 PC방 이용항목 (최대값 14.43점) (최소값 0점)	성별	남자	11.04(6.13)	2.08	0.04
		여자	9.69(6.79)		
	교급별	중학교	10.13(6.61)	0.47	0.63
		인문계고등학교	10.90(6.24)		
		실업계고등학교	10.42(6.51)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10.17(6.61)	2.97	0.05
		중소도시	9.80(6.76)		
		군단위	11.90(5.52)		

3) 소외청소년의 정보화 지수

소외청소년의 정보화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7>에서처럼 전체 평균 정보화지수는 74.14로서 이 중 정보인식지수는 29.00, 정보접근지수는 45.15로 나타났다.

<표 17> 정보소외계층의 배경변인별 정보화지수

항 목	구 분		Mean(SD)	t-value/ F-ratio	유의 확률
정보화지수 (최대값 100점), (최소값 8.20점)	성별	남자	74.38 (17.36)	1.40	0.24
		여자	73.89 (16.81)		
	교급별	중학교	72.08(18.30)	4.19	0.02
		인문계고등학교	77.52(13.85)		
		실업계고등학교	76.42(15.87)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76.29(15.18)	3.84	0.02
		중소도시	74.24(17.00)		
		군단위	69.82(19.82)		
전체		74.14(17.07)			
정보인식지수 (최대값 41.0점), (최소값 8.20점)	성별	남자	29.18 (4.40)	0.000	0.99
		여자	28.83 (4.16)		
	교급별	중학교	28.51(4.21)	3.80	0.02
		인문계고등학교	29.63(3.87)		
		실업계고등학교	29.79(4.79)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28.62(4.49)	1.21	0.30
		중소도시	29.36(3.89)		
		군단위	29.05(4.58)		
전체		29.00(4.28)			
정보접근지수 (최대값 59.0점), (최소값 0점)	성별	남자	45.20 (16.09)	1.74	0.19
		여자	45.11 (15.43)		
	교급별	중학교	43.57(16.90)	2.96	0.05
		인문계고등학교	47.91(13.09)		
		실업계고등학교	46.68(14.51)		
	거주지역 규모별	대도시	47.73(13.60)	5.31	0.01
		중소도시	44.87(15.99)		
		군단위	40.76(18.10)		
전체		45.15(15.74)			

한편 정보화지수를 배경변인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 성별은 정보화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과 거주지역의 규모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전체 정보화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인문고의 점수는 77.52점으로 가장 높고, 실업고 76.42점, 중학교는 72.08점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76.29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74.24점, 군단위가 69.82점의 순으로 정보화의 차이를 보였다.

정보지수를 정보인식부문과 정보접근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때, 정보인식지수에서는 학교교급만이 영향을 미쳤고 성, 거주지역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고, 그리고 근소한 차이를 보인 인문고가 정보의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 정보접근지수에서는 학교교급, 거주지역에 따라 정보접근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별변인은 영향력이 없었다. 즉 인문고, 실업고, 중학교의 순으로 정보접근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의 순으로 정보접근이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V. 결 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별의별 문제들을 경험하며 그 해결방책을 모색하지만, 그러한 문제와 해결방책은 어디까지나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버스와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더 확장할 경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심치않게 발견할 수 있고, 이 때 비로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정보격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급속한 정보화와 맥을 같이하며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와 정부차원의 대책이 속속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계층의 경우 정보화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는 이유로, 또는 정보화에 친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과 관련된 정보격차 논의나 정책이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계

층을 일반집단과 소외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정보격차 실태를 정보인식과 접근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동시에 소외집단 청소년의 정보화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집단과 소외집단 청소년간에는 정보인식 부문의 격차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접근차원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접근 격차가 전체 정보화지수의 격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일상적인 정보생활에서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두 집단간 가정 PC보유 여부나 PC와 인터넷 이용능력 격차가 PC 이용장소나 이용목적, PC방 이용목적과 이유, PC와 인터넷이용시간 등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외청소년의 배경변인별 정보격차를 분석한 결과, 먼저 인식부분에서는 배경변인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정보접근 부문에서는 거주지역과 학교교급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정보접근 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특히 일반집단과 소외집단간의 격차가 국민 전체의 정보격차에 비해서 그리 심각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지만,²¹⁾ 정보접근에서는 어느정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일상적인 정보생활에서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외계층 내부에서도 거주지역이 작을수록 정보소외 현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계층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정보격차 실태와 그들의 정보화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외계층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으로 국한하였지만 장애청소년이나 빈곤청소년, 오지지역 거주 청소년 등 정보소외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의 정보화욕구와 정보화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정보화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미래 우리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

21)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규모별 정보격차 현황은 유지열 외(2000), 앞의 책, pp. 213-218.을 참조할 것.

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소외청소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소외청소년계층은 다른 연령층의 소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인식과 접근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서처럼 일반 청소년과 소외청소년간에는 정보접근의 격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소외청소년가운데 지역별 차이가 심각한 점은 근래 지역정보화 지원정책이 소외계층 청소년과 연결되어 정보격차해소방안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국가정책과 사업의 중심 대상 안에 소외청소년이 고려되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파급효과를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청소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다양한 소외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격을 지닌 정부기관과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조정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성격을 지닌 소외계층의 정보화정책이나 사업은 관련부처나 기관의 고유업무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계층에 속한 청소년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집단의 경우, 성별이나 교급보다는 거주지역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듯이, 각 소외집단의 내부적 정보화 특성에 맞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의 경우 다른 소외계층과 달리 일반학교에서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경우 PC이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PC이용장소나 PC이용에 영향을 받은 사람, PC이용목적이 일반청소년과 달리 학교나 교사와 밀접한 관련이 맺은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소외집단은 PC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지도·감독할 대상이 특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정보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보이용 시스템에 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처럼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관들간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들 민간의 참여 방식의 다양화와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PC나 네트워크와 같이 정보접근의 측면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매체를 지원해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소외계층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사업의 대부분이 PC 무상보급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매체의 보급동향을 고려할 때, PC보급과 같은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이 정보의식과 접근을 넘어 이용과 만족과 같은 차원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학(1998), “정보사회의 성격 :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나남.
-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2001, 문화관광부.
- 박명진(1996), “정보격차와 세대차이”, 정보사회와 사회윤리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재단.
- 서이중(2000),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개념과 대책의 필요성,”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 오광석 외(2000),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서울: 한국전산원.
- 오광석 외(2000),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 유지열 외(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윤영민(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윤옥경(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한국청소년연구, 제3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보통신부(2001),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정보

- 통신부.
- 조정문(2000), “외국 및 국제기구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 최두진 외(1996),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_____ (2001), 2001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현황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최홍석 외(2000), 정보불평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 배규환 · 임창규(1998), “한국 5대 도시의 정보화수준과 정보격차”,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한국언론학회 · 한국사회학회 편.
- 황상민(2000), “온라인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과 부모의 시각차”, 청소년 온라인문화 바로 이해하기, 학부모정보감시단 · 경향닷컴 세미나자료집.
- 황종성 외(2001),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 _____ (2001),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 황진구 외(2001),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Anderson, Robert et. al., *Universal Access to E-Mail : Feasibility and Societal Implication*, Santamonica: LAND, <http://www.rand.org/publication/MR>
- Bolt, David & Crawford, Ray(2000), *Digital Divide: Computers and Our Children's Future*, New York: TV Books.
- Compaine, M. Benjamin(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London : MIT Press.
- Howard, Sue ed.(1998), *Wired Up : Young People and the Electronic Media - Media, Education, and Culture -* . Univ College of London Pr.
-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rade Association(2000), *State of the Internet 2000*.(<http://www.itta.com/internet2000.htm>, 검색일 :

2000. 10. 4.).

- Loader, Brian D.(1998), *Cyberspace divide : equality, agency and poli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tanley, Laura D.(2001), "Beyond Access: Defining the Digital Divide", Symposium on the Digital Divide, IAMCR & ICA.
- Loosen, Wiebk(2001), "The Second Level Digital Divide: Techn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Dividing the Web", Symposium on the Digital Divide, IAMCR & ICA.
- Norris, Pippa(2001), *Digital Divide :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
- OECD(2000), *Schooling for Tomorrow : Learning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Paris: OECD
- Schiller, H.(1996), *Information Inequality: The Deeping Social Crisis in America*. New York: Routledge.
- Julian, Sefton-Green(1998), *Digital Diversions : Youth Culture in the Age of Multimedia*, London : UCL Press.
- U. S. NTIA(2000), *Falling Through the Net : Toward Digital Inclusion*, Washington D.C.
- Wresch, William(1996), *Disconnected: Haves and Have Nots in the Information Age*,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ABSTRACT

Digital Divide Among Alienated Youth

Yang, Sim-Young* · Hwang, Jin-K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igital divide occurs between adolescents and adolescent-households, the most representative group of alienated class among youth, and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Actual Information Condition which was held to 3,300 middle and high schoolers and 400 adolescent-households, these authors made a close observation on information recognition an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and analyzed the daily life of information differentials among two groups. In addition, the information level was compared regarding to gender, school, and communit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alienated peopl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t appears to be similar between two groups in the area of information recognition while it shows a wide difference in th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including the rate of having personal computers in their homes. In particular, the alienated youth has lower level than other general youth group in information index which combined the information recognition and accessibility. Moreover, it is identified that the gap in information accessibility provides the factors of inducing difference in daily information life of the two groups, for example, the place for using personal computers and a person who influenced them to use internet at the start. Within the gap of alienated youths, gender had no effect on information index while school comes humanity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and residence comes big cities, small towns, and counties in that order.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specified alternatives for alienated youths should be activated through information policies or services.

* Soong-Eui Women's College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한국청소년연구』 원고 투고 규정

I 『한국청소년연구』 원고투고 일반사항

1.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청소년학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단,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타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의 출판은 연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출판 시기는 1호는 6월, 2호는 12월로 한다. 원고접수는 4월 말과 10월말 2차에 걸쳐 마감한다.
3. 제출원고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치며, 편집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최종 게재여부와 순서는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5. 논문 게재시 투고자는 게재료와 논문심사료에 해당하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의 사전요청과 필자의 실비부담에 의하여 별쇄본을 제공한다.
6. 원고를 제출할 때는 별지에 다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한다 : 제출원고 제목,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직장 및 자택 주소, 전화번호), e-mail address나 통신ID, 주요경력사항, 최종학위 대학 및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7. 제출원고는 다음의 주소로 우송하거나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137-715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담당 (Tel. 2188-8866)
8. 최종 게재 원고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제공된다(www.youthnet.re.kr).

II 『한국청소년연구』 원고작성 요령

1. 원고는 HWP(호플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한 후 원고 1부와 원고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2.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국·영문 초록의 분량은 A4 용지 단면 1/2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4. 원고는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 I,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5.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한자와 외래어를 한글 원문 옆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며,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이탤릭체로 부기한다.

6. 모든 그림(figure 또는 graph)이나 표(table)는 동판을 뜰 수 있거나 쉽게 제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넣는다. 표와 그림의 제목 표시와 본문에서의 표와 그림의 언급 시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표 3 : 청소년들의 시설이용 빈도
7. 참고한 책에 대한 주석은 본문 주로 하며, 단,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한 권일 경우(홍길동 외, 2000: 35)
 - * 두 권 이상일 경우(홍길동, 2000a: 69-75; 김길동, 2000: 85)
 - * 인용책의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저자의 이름을 모두 명기(홍길동·김길동, 2000: 26)
 - * 3인 이상인 경우는 '○○○ 외' 라고 명기(홍길동 외, 2000: 30-45)
 - * 동일저자가 동일년도에 발행한 책인 경우 연도 뒤에 a, b, c... 등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홍길동 외, 2000a: 89), (홍길동 외, 2000b: 54)
 - * 외국인 이름을 인용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름이 처음 나올 때는 ()를 한 후 괄호 안에 원어 전체 이름을 명기한다. 하트(Hart, R. A.)는...
8. 참고문헌에는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문헌만을 제시한다.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을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은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 서적', '한자를 사용한 서적' 순으로 제시한다(각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자모순에 따라 정리한다).
9.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정리한다.
 - 1) 단행본인 경우
 - ① 단일 저자인 경우
 - 예) 차○○(2000). 한국의 청소년정책. 서울: 양서원
 - * 저자(년도). 책제목. 출판지역: 출판사.
 - 예) 文部省(1996). 教育指標 の 國際比較. 東京 : 文部省.
 - * 저자(년도). 책제목. 출판지역: 출판사.
 - 예) Hart, R. J.(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성, 이름(약자시 .)(년도). 책제목(이탤릭, 첫머리만 대문자이고 모두 소문자). 출판지역(유명한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만 적고, 작은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과 주명 등을 다 적어줌): 출판사(출판사명은 책에 명기된 대로 대문자 표시를 다 해 줌).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저자의 수에 관계없이 저자는 모두 명기함을 원칙으로 함

예) 강○○·박○○(2000). 고졸청소년 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저자·(가운데 점)저자(년도). 책제목. 출판지역: 출판사.

예) Evans, G. and Poole, M. (1991). *Young adults: Self-perceptions and life contexts*. London: The Falmer Press.

* 성, 이름(약자시 .) and 성, 이름(약자시 .)(년도). 책제목(이탤릭, 첫머리만 대문자이고 모두 소문자). 출판지역(유명한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만 적고, 작은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과 주명 등을 다 적어줌. 주명의 경우는 약자로 적음): 출판사(출판사명은 책에 명기된 대로 대문자 표시를 다 해 줌).

예) 황○○·임○○·김○○(1999). 청소년정보화 실태와 새로운 정책의 방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저자·저자·저자·저자(년도). 책제목. 출판지역: 출판사.

예) Willis, P., Jones, S., Cannan, J., and Hurd, G.(1990). *Common culture: Symbolic work at play in the everyday cultures of the young*.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성, 이름(약자시 .), 성, 이름(약자시 .), and(최종 저자의 이름 앞에 붙임) 성, 이름(약자시 .)(년도). 책제목(이탤릭, 첫머리만 대문자이고 모두 소문자). 출판지역(유명한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만 적고, 작은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과 주명 등을 다 적어줌. 주명은 약자로 적음): 출판사(출판사명은 책에 명기된 대로 대문자 표시를 다 해 줌).

2) 학위논문인 경우

① 국내 논문

예) 이○○(1995). 한국 청소년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저자(년도). 논문 제목. 대학교명 학위논문종류.

② 외국 논문

예) Strong, D. L.(1988).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youth crime and violence on population projections and the job p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 저자(년도). 논문 제목(이텔릭).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대학명.

3) 저널의 논문인 경우

① 국내 저널

예) 박○○(2000). 퇴계의 청소년시절과 한문탐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1호, pp.183-201

* 저자(년도). 논문 제목. 잡지명, 제○권 제○호, pp. 쪽수.

② 외국 저널

예) Neiger, B. 1., & Hpokins, R. W.(1988). Adolescent suicide: Character traits of Night-risk teenagers, *Adolescence*, Vol. 23, pp. 469-475

* 저자(년도). 논문 제목(처음 단어만 대문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임). 잡지명(이텔릭-잡지명의 원래 단어대로 대문자를 표기함), Vol. ○ No.○(이텔릭), pp. 쪽수.

4) 편집된 책의 경우

① 국내 서적의 경우

예)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9). 청소년학총론. 서울: 양서원

* 편저자 편(년도). 책 제목. 출판지역: 출판사.

예) 김○○(1999). 청소년문제.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총론. pp. 305-332. 서울: 양서원

* 직접 본 내용의 저자(년도). 직접 참고한 내용의 제목. 편저자 편, 책 제목(중고딕)(pp. 쪽수). 출판지역: 출판사.

② 외국 서적의 경우

예) Giroux, H. A.(1998). Teenage sexuality, body politics, and the pedagogy of display. In J. S. Epstein(Ed.), *Youth culture: Identity in a postmodern world*(pp. 24-55).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직접 본 내용의 저자(년도). 직접 참고한 내용의 제목. In 편저자(이름의 약자를 먼저 적고 성을 적음)(Ed.-한 명이 편집한 책의 경우, Eds.-두 명이 편집한 책의 경우), 책제목(이탤릭)(pp. 쪽수). 출판지역: 출판사.

5)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예) ○○○(2000). 고등학생으로 살아남기.

<http://www.cyberyouth.org>(2000. 7. 30).

* 저자(제작년도). 제목이나 주제명. 인터넷주소(검색일).

예) U.S. Bureau of Census Homepage(1997). <http://www.census.gov>
(검색일 : 1999. 5. 3).

* 홈페이지 제목(제작년도). 인터넷주소(검색일).

6) 신문기사 자료

예) ○○신문 2000. 7. 6일자 4면(종합) 기사 : 미 10대 너무 이른 성관계 후회

예) ○○일보 2000. 7. 30일자 25면(기획) 기사 : 내년부터 청소년 차매달 금지

10. 이상의 투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원고의 체제 및 기술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한국청소년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 위원회는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발간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는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출판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 3 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한국청소년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1) 매년 6월말과 12월말 년 2회 발행한다.

2) 논문 접수마감은 학회지 발행예정일의 2개월 이전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공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전공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참여자
3. 전공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 소지자

제5조 편집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심사위원 선정

제9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자
3. 기타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10조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을 3명 이상 선임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1/2이상의 동의에 의해 선임한다.

제4장 심사 기준 및 절차

[1차 심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1차 심사는 편집위원들이 담당한다.

제13조 편집위원들은 심사대상 논문이 청소년연구영역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결정은 편집위원 2/3이상이 동의에 의한다.

[2차 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2차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담당한다.

제15조 심사위원들은 각 논문의 게재가, 수정게재가, 게재불가를 판단한다.

제16조 심사는 심사양식에 따라서 실시한다(별첨양식 1, 별첨양식 2).

제17조 수정게재가, 게재불가의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취합 및 수정보완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제17조의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게재가는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이 없는 경우이며, 수정보완지시는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게재불가는 심사위원 중 1/2이상이 게재불가를 요청한 경우이다.

[3차 심사 규정]

제20조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결과와 수정보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시 2차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게재불가에 대한 재심요청규정]

제22조 논문제출자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재심요구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을 요구한다.

제24조 만약 재선출된 심사위원들 1/2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경우 논문집에 실지 않는다.

제25조 재심결과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논문집에 심사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제5장 부 칙

제26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소유하며, 논문의 게재순서는 접수 순으로 한다.

제27조 원고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위치한 곳에 제출(우송)한다.